

6268

예수 고난회
의
회칙과 회헌



BIBLIOTHECA
ARCHIVI GENERALIS
CONGREGATIONIS PASSIONIS

로마 1984 06.NOV.1988

卷之三

수도자 및
재속회 성성

공한 92-1/83

교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고난회는 역사적인 이 성도에 본부를 두고, 그 고유한 생활양식과 사도직, 특히 설교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키며 고무하는 일을 특별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목적은 독특한 서원으로써 강화되고, 회원들의 수도자적인 봉헌을 전적으로 고취하며, 생활과 사도직의 일치를 촉구하고 있다.

총장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법전의 정신에 따라 총회의 오랜 연구로 작성된 회헌을 공식 승인받기 위하여 성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수도자 및 재속회 성성은 자문위원회들과 예비 심사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본 성성 문서고에 보관하는 이 회헌의 라틴어 사본에 몇 가지 내용을 변경하여, 제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교령으로 이 회헌을 인준하고 확인하는 바이다.

이 회현 앞에는, 1775년 비오 6세로부터 성대하게 승인받았던, 십자가의 성바오로의 회칙 전문이 있는바, 이 회칙이 창립 아버지의 참된 영감과 지향을 이해하는데 특별한 힘과 중요성을 지니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수도자들은 이를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형제로서 함께 생활하고, 창립자의 발자취를 따르는 고난회의 회원들은 수도회의 고유한 성격에 생활을 맞추고, 청빈과 기도 그리고 고독으로써, 그 완성에 도달하여야 한다.

원컨데,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유산을 충실히 보전하고,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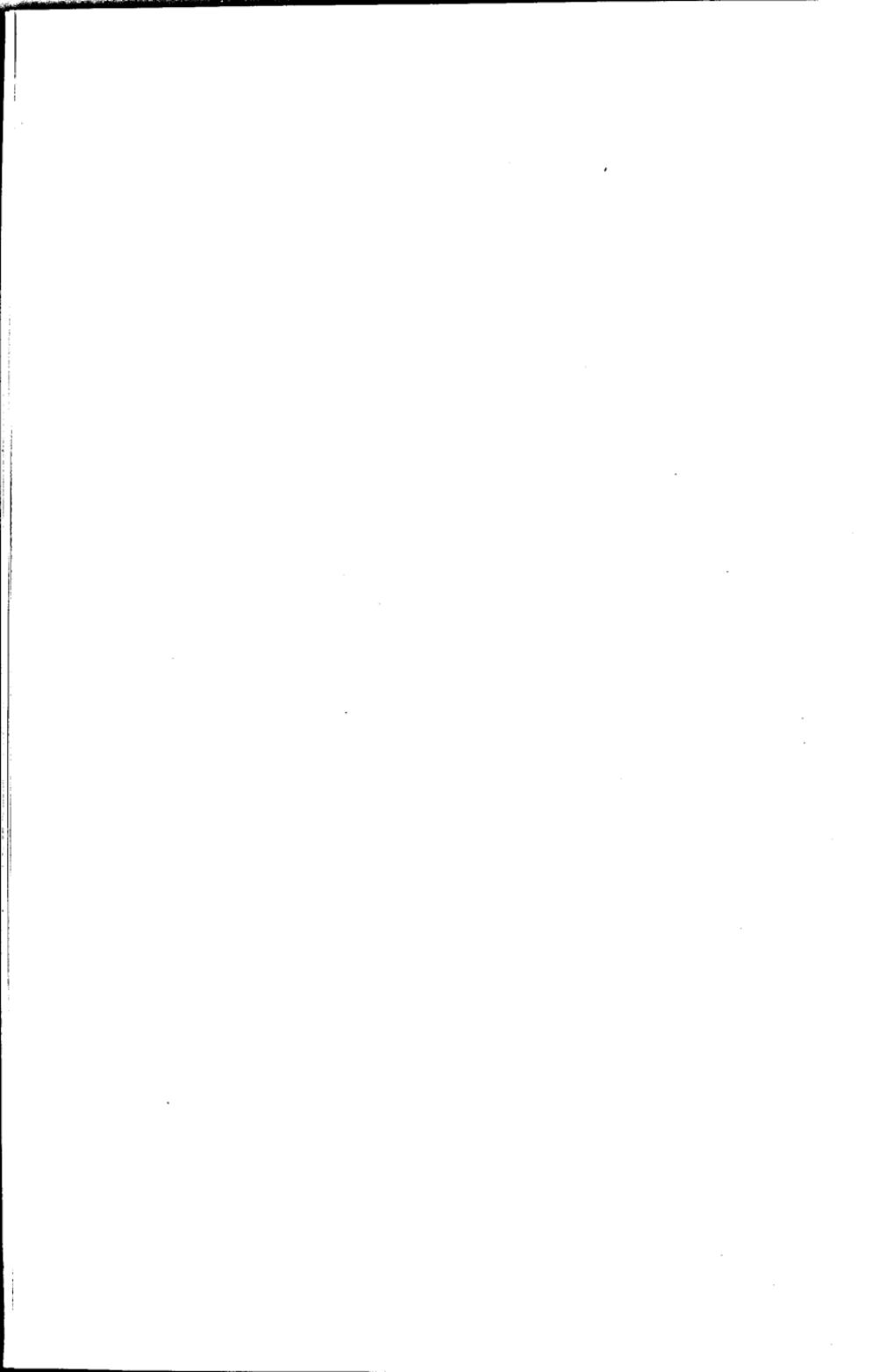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1984년 3월 2일, 로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대히 기념하는 우리 구원의 성년에.

성성 장관 E. 뼈로니오 추기경
비서 어거스틴 메이어 신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십자가와 고난의
맨발 성직 수도회
의
회칙

1775



차례

- 제 1 장 : 수도회의 목적
- 제 2 장 : 수도회의 건물을 세우는 장소
- 제 3 장 : 성당과 은둔소의 양식과 조건
- 제 4 장 : 수도회에 받아들이기 전에 지켜야 할 준비
- 제 5 장 : 형제들의 의복
- 제 6 장 : 수련기가 승인되기 전에 해야 할 일
- 제 7 장 : 수도회의 형제들을 착복하는 예식
- 제 8 장 : 수련장의 선출과 직무
- 제 9 장 : 수련자들의 승인
- 제 10 장 : 단순서원을 발하도록 허락받는 사람들
- 제 11 장 : 단순서원을 발하는 예식
- 제 12 장 : 서원을 실행하는 방법과 순명의 첫째
- 제 13 장 : 청빈
- 제 14 장 : 수도회의 성당과 수도원에서 지켜야 할 청빈
- 제 15 장 : 정결
- 제 16 장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열렬한 공경과 즐거운 기억을 신자들에게 조성하려는 서원
- 제 17 장 : 수도회에서 지키는 단식
- 제 18 장 : 수도회에서 단식을 지키는 방법

- 제 19 장 : 수도회의 다른 영신수련
- 제 20 장 : 평수사들이 할 일
- 제 21 장 : 기도
- 제 22 장 : 학문의 연구
- 제 23 장 :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과 거룩한 설교자들의 주요 의무
- 제 24 장 : 순회 설교직을 수행하는 방법
- 제 25 장 : 침묵
- 제 26 장 : 영혼의 휴식
- 제 27 장 : 식당에서 할 일
- 제 28 장 : 매일 저녁 장상이 해야 할 업무의 분담
- 제 29 장 : 수면과 밤의 휴식
- 제 30 장 : 수도회의 장상 선출
- 제 31 장 : 지방 수도원의 장상과 그 관리
- 제 32 장 : 금요일의 회의
- 제 33 장 : 여행하는 방법과 세속일을 절제함
- 제 34 장 : 한적한 수도원이 있는 인근지역이나 도시에서 영신수련하는 방법
- 제 35 장 : 수도회에서 해야 할 참회와 공로
- 제 36 장 : 회칙과 회헌 위반 시에 부과해야 할 벌과 고행
- 제 37 장 : 앓는 형제들에 대한 배려
- 제 38 장 : 형제들이 죽을 때 해야 할 일, 그리고 죽은 형제들과 은인들을 위하여 수도회에서 바쳐야 할 미사와 기도

제 1 장 수도회의 목적

본회는 모든 크리스챤, 특히 모든 성직자들이 그들의 힘이 나오고, 그들의 고유한 신분이 허용되는 신법(神法)의 계명과 복음적 권고를 명실공히 엄격하게 실행해야 하는 것과 꼭같은 목적을 지닌다.

그러므로, 지난하고 가장 겸손한 이 수도회의 수도자는, 무엇보다 먼저, 본 회헌에 규정된 방법으로 그들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예비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그들 자신의 영적 진보에 유익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지혜롭고 부지런히 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직무에 자신을 성실히 봉헌해야 하며, 이 두 가지 목적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수도회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사랑으로써 하느님께 하나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교육하여 다른 사람들을 같은 목표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문에 다른 신심행사와 마찬 가지로 「순회 설교직」에 종사하는 것이 적절한 직무라고 생각하는 회원들은 마치 셈에서 흐르듯 우리의 모든 선이 훌

러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신비를 열렬히 묵상하도록, 사람들을 살아있는 목소리로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한다.

이것은 순회 설교 도중 강론 후에 하든지 혹은 적당한 다른 장소와 시간에 하든지, 특히 고백 후이든지 아니면, 주어지는 다른 기회에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처럼 유익하고 건전한 생각은 죄악에서 사람의 마음을 회두시키며 우리들이 지향하는 크리스챤 완덕에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 2 장

수도회의 건물을 세우는 장소

온수자의 집은, 가능하면, 가장 편리하고 가장 훌륭한 양식으로 한적한 장소에 지어야 하되, 회헌의 규정에 따라 모두가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수도원을 같은 교구 내에 지을 수 있으나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지방 교구장의 재량에 따라야 하고, 수도회의 장상은 마땅한 존경심과 겸손을 가지고 그분의 소망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3 장

성당과 은둔소의 양식과 조건

성당은 적당한 크기로 지어야 한다. 성당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청결해야 하며, 관례대로 정돈하여 성소에 어울리도록 꾸여야 한다.

침실의 방은 2.74 m 의 길이와 넓이로 제한한다. 침실의 복도는 폭 1.82 m 로 한정한다. 사무실과 식당은 형제들의 수효에 비례해야 한다. 그리고 부속 건물을 포함하여 건물 전체는 회원들의 청빈과 수도자의 품위를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이미 건축된 성당이나 건물이 수도회에 제공될 경우에는, 위의 규정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주거지는 한적한 장소에 지어야 한다.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 구령을 위하여 사도적 일을 끝마친 열심한 형제들이 인간 집단과 세상의 잡음을 멀리 벗어나 스스로 고독 속에 몸을 던지고, 자신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기도하고 단식하며 또 다른 신심행사를 행하므로써, 하느님 사랑으로 더 더욱 불타오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써 크리스챤 덕행에서 더욱 강하게 되어진,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자질을 더욱 높이고 더 잘 준비하게 되

며,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열렬한 신심
과 즐거운 회상 그리고 공경심을 도처에 전하기 위하여 전
력을 다 바치게 된다.

제 4 장

수도회에 받아들이기 전에 지켜야할 준비

누구든지 수도회에 받아들이기 전에, 맨먼저 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생활로 부름을 받았는지, 기도와 단식 그리고 성사를 자주 받아 성숙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스스로 세속 일을 멀리하면서, 자기의 고백신부나 혹은 영성생활의 지도자 또는 이처럼 중요한 일을 판단할 자격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청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하느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많은 것을 인내하며, 조롱당하고, 멸시 당하며, 그리고 스스로 고뇌하고 괴로워할 정도로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고 조사하여야 한다.

주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그는 수도회의 총장이나 관구장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으면,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임명하여야 한다. 이런 일이다 이루어진 후에는 그로하여금 가사일을 돌보고, 빚을 갚게 하며, 다른 모든 것을 충족시키므로써 그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전혀 없게 하여야 한다.

제 5 장 형제들의 의복

형제들의 의복은 일반 모직물로 만든 허름한 검정색 수도복 한벌이어야 하며, 망또 한벌 역시 같은 색, 같은 재료여야 하고, 무릎에 닿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의복들은 각각 칼라가 있어야 하는데, 소위 정규 성직자의 칼라와 같아야 한다. 또한 형제들은 팔렌띠노 공의회에서 제정한 형식에 따라 성직자의 삭발례를 행하되, 수도회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동절기에는 장상의 허락을 얻어 수도복 아래 내의도 입을 수 있다. 수도복 위에는 가죽 띠를 매어야 한다. 수도복 왼편에는, 그리고 망또에도 역시 심장을 작게 그리고 그 안에는 흰 글씨로 주님의 구속적인 고난이란 칭호를 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그 위에는 작은 십자가를 덧붙이되, 흰색으로 하여 꿰매어 붙여야 한다.

이 구원의 표시는 수련기를 마친 형제들만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평수사들은 성직자와 사제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 구원의 표시를 수도복에만 부착하지, 망또에는 붙이지 않는다. 형제들은 맨발로 다니게 하며, 샌달만으로 만족해

야 한다. 머리 위에는 허름한 모자를 쓴다. 집 안에서는 모든 회원들이 베레띠노라는 평범한 모자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허름하고 단정하며 수도자에게 어울려야 한다. 사제들과 성직자들은 일반적으로 베레따라고 부르는 성직자의 모자를 사용해야 한다. 성당 안에서는 맨머리로 있어야 하지만, 대머리나 환자에게는 모자가 허용된다. 외투 안에는 모직으로 된 셔츠를 입고, 또 허름한 아마로 만든 속옷을 입되, 사도적 직무로 일을 하거나 혹은 여행 중일 때에는 땀을 덜 흘리기 위하여 아마로 된 속옷을 입을 수 있다.

제 6 장

수련기가 승인되기 전에 해야 할 일

수도회에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성세를 받은 문서를 비롯하여 합법적인 출생 증명서 및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성직자일 경우에는 학력 증명서를 제출한다. 또한 그들은 미혼 증명서, 인물 증명서 및 법정의 무기소 증명도 제출하여야 한다. 비록 그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수련소의 문서고에 이러한 증명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여서는 않된다. 이 외의 적당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장상의 재량권에 속한다.

같은 문서고에는 수도원의 다른 문서들도 보관해야 하는데, 이중에 2개의 주요 기록부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착복일로부터 우리 수도회에 입적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성 그리고 출생지를 기록해야 하고, 다른 기록부에는 사도적 회헌의 규범에 따라 같은 수련자들의 서약일을 명기해야 한다.

25세 이상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회원으로 입적되어서

는 않되며, 어느 때 다른 수도회에서 착복한 사람은 관계 기관이 이 법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 입적되어서는 않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입장에서 받아들여진 사람이 서면 증명서로 승인받아야 할 총장의 특별 승인이 없으면 허락 해서는 않된다.

이와 같은 이유가 없는 젊은이들은 거의 다 수도회로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도하기가 쉽고 또 수도 회의 관습을 잘 수용하며, 우리 회현과 회칙의 규정에 따라 양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관구장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수련자의 승인은 총장이 매년 결정하는 수효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두번째 투표를 거친 사람은 수도복을 입기 전의 일정 기간 동안에 장상과 수련소 원로들의 슬기와 재량에 따라 자신의 평상복을 입고 우리 사이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이라도 그는 다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에 겸손한 행위를 실천적으로 증명토록 할 것이다. 접시를 닦고 주방에서 일하고 집안 청소를 하게 할 것이며, 크리스챤적 복종과 인내를 증거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특히 식당에서 견책 받아야 하며 때로는 맨땅에서 식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가 애덕 행위를 거스린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됨으로써 장상이 명하는 창

피스럽고도 굴욕적인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치욕적인 사람이 되시고자 하셨으며, 가장 완전한 모든 덕행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오롯이 숨기며,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통하여, 하느님께만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 세속에 대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조건에 있든지 이유를 댈 수 없다. 귀족 출신인 사람은 더욱 엄격하고 긴 시련으로 단련받아야 한다. 그러나 견습기에도 인자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가 결코 없어서는 안된다.

이런 일이 만족스럽게 끝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 할 수 있는 참사회를 소집하여, 수도회에 입적을 요청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내보내는 것을 결정한다. 만일 그가 승인받게 되면, 10일 동안 거룩한 단련과 열렬한 묵상에 전념하므로써 더욱 훌륭히 교육되고, 하느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져서 그는 자신의 봉헌을 더욱 알맞게 준비할 수 있다.

제 7 장

수도회의 형제들을 착복하는 예식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수도자들의 전체 모임에서 수도복을 입을 사람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수도복을 입혀준다. 지방 장상이 강론을 하는데, 그는 강론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인내하도록 권고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진정한 추종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선인 보화가 얼마나 큰지를 잘 설명해주어야 한다. 거룩한 수도복을 입은 후에는, 자모이신 성교회의 통상적인 예식에 따라, 모든이들이 보는 앞으로 수련자가 나오게 한다. 그 다음에 그의 어깨 위에 십자가를 얹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면서, 행동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으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 사랑하는 형제여, 주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받으시고, 하느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당신 자신을 낫추시며, 하느님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게 예속된 사람이 되십시오. — 예식이 끝나면, 장상과 형제들이 평화의 인사로 수련자를 환영하고, 기쁜 얼굴로 또

항구하게, 참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도록 북돋아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자기 방에 가서 세속적인 속옷들을 벗어버리게 하고, 양모로 된 속옷과 팬츠를 입게 할 것이다.

제 8 장

수련장의 선출과 직무

수련장은 수도회의 총장이나, 혹은 총장의 동의를 얻는 각 관구에서 관구장과 참사위원들에 의하여 선출되며, 매번 참사회의 밖에서 다른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는 서약 후 적어도 10년을 경과한 자로서 수도회에서 훌륭하게 생활하였고, 또 그의 나이는 적어도 30세 이상 40세는 되어야 한다. 또한 그는 영적인 일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사랑이 뛰어나서 그 직무에 어울려야 한다. 그는 우리의 관습과 규율에 따라 수련자들을 교육하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악마들의 허울좋은 수법과 다른 위험을 알게하므로써,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여 하느님을 섬기도록 해야한다. 그는 겸손하고, 사려깊으며 신심깊고 지혜롭게 처신할 것이며, 모든 일에서 사랑이 돋보이게 행동할 것이며, 특히 수련자를 교정하고 견책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 잘못한 사람은 양순하고도 지혜롭게 권고하고, 과오의 형태에 따라 부드럽게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온화하게 하므로써 잘못한 자가 쉽게 고치도록 하고 또 잘못에는 꼭 징계가 따름을 가르쳐야 한다. 결국, 그는 자기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판단의 공정성을 보전

하여야 한다. 교육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는 수도회의 올 바른 지식을 성실하게 전해줄 것이며, 수도회의 정신을 설명하고, 목적을 강력히 역설하므로써, 같은 길로 나아가는 수련자들이 서약을 발하고 따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열심히 실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자주 기도하고, 수도자의 덕행을 열심히 닦고, 가능하면 자기 경멸을 권면 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결점이나 과오들을 식당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기회를 보아서 그들을 교정하고, 책망하며, 자신을 낫추게 할 것이며, 겸손의 실천을 역설하고, 천하고 하찮은 일을 자주 하게 하므로써, 부도덕한 탐욕과 열정에 항거하여 자신을 극복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수련장은 지혜롭고도 부드럽게 모든 일을 명하고, 말로써가 아니라 표양으로써 제자들을 교육하고, 이끌며, 양육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외적인 예모를 갖추게 하고, 눈과 혀 그리고 다른 감각을 제어하도록 가르치므로써 그들이 보다 쉽게 영혼의 내적 평온을 얻고, 그리고 모든 부도덕한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을 최고도로 또 신적으로 일으켜 세우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덕행을 나타내고, 그 정신으로 살게 할 것이다. 수련자들은 정한 시간 외에는 대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련장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비록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세속 사람들과는 더더욱 대화를 허락해서는

않된다. 그러나 만일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꼭 필요하면, 수련장 자신이든지 혹은 협력자가 동석하므로써, 그들이 예모를 갖추고 신중성을 기하도록 할 것이나, 보통 때보다 더 지체하여 마음이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한다. 몇 마디 말로 일을 끝낸 뒤, 즉시 물러나서,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도록 해야 한다. 수련장은 수련자들의 일이 올바르고 거룩한 정신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것이다. 마음의 순수한 지향이 신심 깊은 열렬한 정신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므로써, 그들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고, 또 성실한 자세로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정열을 쏟을 정도로 만사를 관조하게 해야 한다. 또한 수련장은 그들이 성소의 정신을 따라 지도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련자들의 올바른 교육에 수도회 전체의 선이 달려 있음을 경험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쉽게 이것을 달성하려면, 수련장이 자신의 힘을 믿지 말고, 하느님께 완전한 신뢰를 두어야 하며, 필요한 빛을 주님께 기도로써 간청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바라는 모범적인 덕행들을 자신의 행위에서 드러나게 할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수련자들이 편지를 쓰도록 허가하지 말것이며, 신심 깊은 수도회에 반대되거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수련장이나 혹은 협조자는, 한주일에 서너번, 6시 경을 합창으로 기도하기 전에, 참회시키거나 혹은 교육적

인 성찰을 실시하되, 수련자들의 영적 진보에 보다 유익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다른 날에는 각자 자기 방에서 영적 독서 전에 특별 성찰을 하게 할 것이다. 매일, 공동 독서 후에 수련장이나 혹은 협조자는 수련자들과 함께 집 울타리 안에서 거룩한 행렬을 짓게하고, 그들로 하여금 로사리오 오단을 계응으로 바치게 할 것이다. 또한 이와같이, 규정된 시간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조배하고, 이보다 앞서, 규정된 기도를 바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신심을 쉬게하려는 목적으로, 수련장이나 협조자와 함께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일기나 혹은 장소의 사정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수련장의 지혜로운 다른 방법으로 신심의 위안을 주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그들은 신앙과 신심에서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항상 보다 유익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련받는 기간에 수련자들은 영적인 완성을 추구하는데 특별한 정열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기도와 미사 후, 저녁에는 로사리오 기도를 바친 후, 적어도 30분 동안, 어떤 성서, 특히 신약성서에 대한 해설 시간이 있으므로 인하여, 수련자들이 스스로 열심히 묵상하거나 혹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야한다.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의 다른 시간에, 감독자나 혹은 수련장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방에 물러가서도 그렇게 해야한다. 수련

장은 비애, 유혹 혹은 세심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우는데 특별한 배려를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이런 경우가 닥칠 때, 수련장은 사랑과 지혜가 돋보이게 할 것이며, 즐겁고도 행복한 표정을 지으므로써, 그들이 내면의 악마가 소용돌이치는 신비스런 마음을 더욱 쉽게 펼쳐보일 것이며, 적당한 약으로 더욱 열렬하게 되므로써 완덕의 길을 헤쳐나가게될 것이다. 수련자들은 신속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련장에게 순종할 것이며, 그의 허락이나 강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며, 집에서 나가지 않아야 한다. 수련장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하며, 기도 중에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빛과 영혼의 열렬한 느낌들을 솔직하게 밝혀야만 한다. 또한 악마의 유혹을 털어놓을 것이며, 자신의 고뇌, 비애, 영적인 일에 대한 권태 그리고 무미건조함을 알게해야 한다. 끝으로, 모든 구실과 자기애를 떨쳐버리고, 성실하게 또 정확하게 자신의 결점을 펼쳐보일 것이다. 그들은 무슨 일에서든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또 크리스챤 덕행의 원수로부터 속임을 당하여 마음의 평화와 평온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수도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어, 마침내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자신이 받아들인 수도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교만과 게으름에 대한 벌로 이를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로써 자신의 깊은 상처를 숨기는 사람은 적당한 치료제나 도움을 받는데 실패하고 만다. 이와는 반대로, 교만을 싫어하며, 겸손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성실과 알뜰함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선물로 풍성히 해주실 것이다. 그들은 평화를 누릴 것이며, 최상의 덕으로 꽂힐 것이며, 그리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진실한 성덕의 완성에도 달하게 될 것이다. 각 관구에는 수련자를 위한 수련소를 세울 것이고, 그에 대한 지정은 총장과 그의 참사위원들에게 속해야 한다.

제 9 장 수련자들의 승인

수련자들은 만 1년을 수련해야 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 순명과 자발적인 청빈 그리고 정결의 단순 서원을 발해야 한다. 여기에 4번째 서원이 추가된다. 이 서원은 곧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억과 공경을 신자들에게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때 제 5장에서 언급된 바 있는 공경하올 표지가 그들에게 수여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서약한 형제들 가운데서 누가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도 선도하지 않아서, 이같은 행위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또 공적인 평화를 흔들어 놓으며, 전 수도회에 불명예를 초래한다면, 장상은 치료약을 거부하는 병든 양이 남은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끌레멘스 14 세께서 《최상의 사도직》 칙서로 승인하셨던 회현의 규범에 따라 자유롭게 그를 내보내어야 한다. 그러나 법대로 서약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평계로든지 자원으로 수도회를 떠날 수 없다.

제 10 장

단순 서원을 발하도록 허락받는 사람들

수도 서약을 발하기 전에, 수련자는 우리 회헌의 규율과 규범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크리스챤 완덕을 얻으려는 항구한 의지를 가졌는지 그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만일 어떤 결점에 빠졌다 하더라도, 오로지 타락하고 변덕스런 마음과 고집스런 자세를 보이지 말고, 삼가 근신하는 노력을 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악표양이 되는 죄를 범하였으면, 온전히 그 자체로 내보내야 할 것이다.

또한 회헌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수도회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수련자들은 혼란스런 감정이나 신체상의 어떠한 질병도 숨기지 말고 알려야만 한다. 따라서, 어떤 중요한 불치병을 숨긴 사람의 서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비록 수도회가 승인했고 또 변치않는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련자들은 결코 회원으로 승인될 수 없으며, 더욱기 질병이 발견되었으면, 서약한 후라도 내보내어야 한다.

제 11 장

단순 서원을 발하는 예식

단순 서원을 발할 사람은 먼저 수련소의 장상 뿐만 아니라 사제들과 거룩하게 품을 받은 다른 서약 수도자들로 구성하는 수도원 전체 회의의 비밀 자유 투표로써 승인받아야 한다. 평수사는 항상 제외되며, 비록 서약자라 하더라도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frac{2}{3}$ 의 투표는 법적인 승인을 얻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합당하게 승인받은 수련자는 수도서원을 해야한다. 수도회의 특별한 관습에 따라, 십자가를 어깨 위에 놓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며, 공경하 올 예수의 성명을 표시한 표지를 그의 가슴에 달아줄 것이다. 이런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사제는 성 요한의 복음 서에서 주님의 수난사를 묵상하는 자세로 낭독할 것이며, 또한 –성신을 보내소서– 하는 기도문을 외울 때, 수련자는 이 장의 끝에 있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순명과 자발적인 청빈 그리고 정결 서원을 발할 것이다. 또한 그는 회헌에서 표현된 방법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억과 공경을 신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선포 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 예식은 수도자들이 《하늘의 주님을 찬양하라》는 시편을 장엄하고도 품위있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동안, 거룩한 행렬이 성당을 지나가므로써 끝이 난다. 수련자들은 총장이나 관구장 혹은 그분들이 임명한 다른 사람 앞에서 서약을 발한다. 《나 ○○○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평생 동정이신 성 마리아와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와 신부님께, 청빈과 정결 그리고 순명을 단순 서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십자가와 고난의 맨발 성직 수도회의 회칙과 회헌에 따라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한 신심을 신자들의 마음 속에 힘껏 전하기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서약하나이다. 아멘.》

제 12 장

서원을 실행하는 방법과 순명의 첫째

순명은 모든 완덕의 초석과 같다. 그리고 진정으로 순명하는 사람은 잠언 XXI., V. 28에서 솔로몬이 증언한대로, 《승리를 말하리라》. 그러므로 이 작은 수도회의 형제들은 입술로만 서약하지 말고 행동으로써 거룩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의 순명은 맹목적이어야 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낮추어 생각하며, 멀시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므로써, 보다 쉽게 수도자의 완덕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명할 것이다. 직책이나 직무에 소임을 맡은 사람은 어디로든지 즉시 달려갈 것이다. 장상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도 편지를 쓰지 말 것이며, 허락을 받아서 편지를 썼다면 그분에 의하여 봉인되어야 한다. 받은 것은 그분에게 전달하고, 그분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며, 수취인에게 전달할 것이다. 사도적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영혼의 지도와 관련하여 쓴 편지는 필요없이 혹은 정당하고 충분한 이유없이 읽어서는 안된다. 고위 장상과 관련되는 편지는, 그분들이 쓴 것이든 그 분들에게

쓴 것이든, 관할권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읽거나 보류시킬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 장상은 형제들 앞에서 봉인을 뜯고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비밀로 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장상들에게 편지 쓸 자유가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허용을 위반하거나 이 자유를 방해한다면, 그 직무에서 면직되어야 한다. 공동 식탁에서 받는 음식과 음료로 만족해야 하며, 장상의 허가 없이는 형제들이 가외의 다른 것을 완전히 절제해야 한다. 누구든지 탐욕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할 수록, 그만큼 더 예리하고 심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자신의 의견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지방 장상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형제들을 지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정당하고 올바른 일에서 스스로 어려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들이 발하는 순명 서원은 첫째 교황 성하, 그다음에 관할권을 가진 수도회의 장상들, 곧 총장, 관구장, 그리고 수도원장 그리고 총장이나 관구장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다른 모든 장상들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우리 수도원이 있는 교구의 주교들과 교구장들에게도 합당한 친절과 신심한 경의를 표하여 순종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배려에 맡겨진 영혼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일에서 신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그분들이 우리 수도자의 봉사를 요청해올 때, 우리 수도회의 관습에 따라

총장이나 혹은 관구장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보내도록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제 13 장

청 빙

청빈은 수도회 전체가 그 아래서 싸우는 깃발이다. 그러므로 서원의 효력에 따라서 어떤 명분으로든 결코 고정 자산을 소유할 수 없다. 단 집에 딸려있는 정원, 집안에서 사용하는 목초지와 산림 그리고 위의 땅을 경작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생산이 초과되더라도 결코 매매해서는 않된다. 또한 사도적 회헌인 -최상의 사도직-의 규범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고정 수입원, 곧 그것이 공동적이든 특수한 것이든,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사도적 회헌에 따라 우리에게 특별히 양도하였다가 자신을 받아준 수도회로부터 세속 신분으로 되돌아갈 경우를 생각하여, 자기 재산을 되받는 권리를 유보해두는 것은 회원 누구에게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 서원을 발하기 전에, 세속에서 소유했던 재산의 사용권을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혹은 신심이나 사랑에 따라 누구에게든지 포기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만일 수도회에 머물다가, 이 생활에서 나간다면, 그때는 유언에 의한 처분 혹은 다른 선언 없이, 위에 말한 양도된 재산은 법에서 예상되는 사람에게 그리고 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회칙의 효력에 따라 형제들의 방은 특별한 것으로 꾸밀 수 없고, 장상의 승인을 받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방안에 아무것도 둘 수 없다. 그리고 수도자의 방에는 어떤 종류의 음식과 음료이든, 어느 누구이든, 비록 장상이라 할지라도 두는 것을 허락할 수 없고, 오히려 고정된 장소에 두고, 열쇠로 채워서, 장상이나 혹은 장상의 임명을 받은 다른 사람이 수도자의 필수품을 공급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형제들은 통상적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금을 청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수기, 포도 수확기, 기름을 짤때, 그리고 콩을 거둘때에는 주교나 교구장의 동의를 얻어서 소속 교구 혹은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청할 수 있다. 총장이나 관구장의 승락이 없는한 다른 것을 얻어올 수 없다. 교회를 위한 현금, 미사 예물, 혹은 자선 명목으로 받은 돈은 장상이나 혹은 그로부터 위임받은 다른 사람이 받아서, 상자에 넣고, 열쇠 두개로 채운 후 하나는 장상 자신이, 다른 하나는 대리자가 갖되, 그의 부재시에는 선출된 다른 사제가 보관하여야 한다. 대리자나 혹은 그에게 예속된 사람은 장상이 상자에 돈을 넣거나 있는 돈을 가져갈 때마다 항상 참석할 것이다. 매일 소비되는 일용품들은 장상의 승인을 얻어서 대리자가 관리할 것이고, 매월 자기 장상에게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며, 특별한 책에 자세히 기록하되, 거기에는 수입, 지출 총액이 들어가야 하고, 서명날인이 덧붙어야 한다. 수도원 회의의 동의가 없으면 수도원의 장상은 특별 지출을 할 수 없고, 대

부를 허용할 수 없고, 또 도서실의 책을 빌려주지 못한다. 만일 이와 같은 지출이 10 스꾸뜰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위 장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도회의 모든 수도원은 서로 사랑의 유대로 일치를 보전할 것이며, 각 수도원의 모든 재산은 다른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으로, 사려깊게 생각한 후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총장이나 관구장이 수도회의 어느 수도원이 소유한 물건이나 돈을 주님 안에서 다른 곳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큰 가치가 없는 것 이든, 고가품이든 교황 회헌에 따라 사도적 승인이 필요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 장상들은 위에 말한 장상의 동의와 허가 없이는 어떤 형태로이든 무슨 물건을 파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 수도회의 수도원이나 성당에서 원하던 모든 것이 남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특히 팔수 없는 정원의 소출에 관한 규정은 앞서 말한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은인들에게 주어야 한다. 영구적인 미사봉헌 의무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미사나 다른 미사의 거행은, 위탁받아서, 적당한 예물을 받고 봉헌하도록 허락할 것이다. 각 사제가 일주일에 한번, 미사 예물과는 관계없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거룩한 제사를 봉헌하는 것은 자유이다. 수도원의 장상은 긴 여행을 하는 수도자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어, 직접 필요한 것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되, 가난한 사람답게 절제하고 절약해야 한

다. 여행이 끝나면, 받은 돈을 계산하여 자기 장상에게 돌려드릴 것이다. 장상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어떤 평게를 대든지 자신을 위하여 애공 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자발적으로 바치고 또 받은 것은 모두 형제들의 공동 소유로 회사된 것이다. 모든이가 수도회의 이 규정을 정확히 지킬 것이며, 그리고 은인들에게 기회가 열리더라도, 기만이나 잘못할 틈을 주지 말것이고, 오히려 수도자의 청빈에 따르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열렬히 따라야할 것이다. 누가 만일 이 법을 감히 어기려 든다면 발견 되는대로 형태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그가 받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해야 한다. 수도회 안에 수도자적 완덕 정신이 이처럼 꽂피면 필수록, 자발적인 청빈에 대한 사랑과 흠토의 정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껴지면, 끌사나운 탐욕이 만사를 흐트려 놓고, 더욱 성스러운 규율의 힘과 열의는 죽어버릴 것이다.

제 14 장

수도회의 성당과 수도원에서 지키야 할 청빈

예모있게 지은 성당 안에, 종교적인 장식과 청결함이 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심을 해치는 화려한 것, 헛된 것 혹은 별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거룩한 가구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잘 정돈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거룩한 신비와 제사에 어울리게 꾸여야 한다. 그러나 거룩한 예배에 더 큰 위엄과 예의를 갖추게 하는 금, 은 혹은 다른 고귀한 장식은 금하지 말 것이다. 수도원의 방은 작고, 단정하며, 몇 가지 성화로 장식하되, 작품이나 재료가 뛰어난 것은 안되며, 두세개의 의자와 허름한 목재 책상 하나로 꾸밀 것이다. 침대의 넓이는 114.3 cm를 초과할 수 없고, 길이는 적당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닥에서 약 22.86 cm 높이로 올라가야 한다. 이불은 계절에 맞게 갖추며, 요와 베개는 짚으로 채운다. 그러나 항상 가난한 사람에게 어울리게 해야 한다. 병실은 환자 수효에 따라 넓고 크되, 경관이 좋고 또 모든 것이 아름답고 편리하게 정돈되어야 한다. 식당은 빈약해야 하는데, 장식이든 재료이든 고가품인 식탁과 의자가 있어서는 않된다. 식탁보와 수건은 모두 모직

천이되, 잘 만들고 또 깨끗해야 한다. 모든 그릇은 청빈에 알맞아야 하며, 숟가락과 포오크는 나무나 혹은 뼈로 만든 것이라야 한다. 부엌에서 모든 일은 사랑과 청결로 임하므로써, 감정이나 건강을 해쳐서는 안된다. 양식을 준비하는 광에는 형제들의 식량과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관해 되,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며, 거기에 형제들을 위한 갖가지 옷과 가구들을 보관할 것이다. 도서실에는, 책 이외에도, 형제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펜, 종이, 잉크, 가위, 주머니칼, 그리고 봉함지를 두어, 그들이 적절하게 사용도록 할 것이다. 만일 장상이 옳다고 생각하면, 형제들이 자기 방 안에 이런 것들을 두거나 혹은 다른 필요한 물건을 가지도록 허락할 수 있다. 또한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책에 대해서도 같은 장상이 규정해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수도원의 장상 앞에 무릎을 끊고, 애굽을 청하듯이 청하여 얻는다면, 그들의 덕행과 완덕의 공로는 그만큼 불어날 것이다. 모든 일에서 오로지 하나만을 열렬히 구할 것인즉,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방자가 되기 위하여 실제로 가난하며 또 그 마음을 스스로 표현할 것이며, 가장 좋은 선물을 얻었을 때에는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난하게 나시고, 궁핍하게 사셨으며십자가에 알몸으로 죽으신 우리 구세주의 표양을 눈 앞에 드러내어야 마땅할 것이다.

제 15 장 정 결

정결은 천사들의 덕행인 만큼, 형제들은 천사적 예모에서 월등히 뛰어나려고 혼신의 힘을 기우려야 한다. 이 덕행을 보다 쉽게 얻으려면, 겸손해야 하며, 정욕에 항거하고 육신을 억제하며, 기도에 열심히 매달리고, 모든 일에서 용의주도해야 한다. 즉,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돌리지 말고, 하느님께 굳은 신뢰심을 둘 것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일해야 할 것이다. 쓸데없이 여자들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크리스챤 사랑으로 인도된 여자가 있다면 합당한 동기가 있어야 하고, 장상의 허가를 얻어서 행동할 것이다. 수도원 밖에서는, 자신의 동료에게 허가를 청할 것이며, 몇마디 말로, 예모있게 또 눈은 땅에 고정시킬 것이고, 엄숙한 표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만일 방 안에서 여자와 함께 말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동료들이 볼 수 있게는 하되, 듣게해서는 않된다. 영혼의 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요청받지 않으면, 그리고 주교나 지방 교구장 및 장상의 승인이 없으면, 봉헌된 동정녀들의 수도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 은인들과 외부인의 집에 머무는 사람들은 수도자적인

신중성과 예모로 그들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 수다스럽게 말해서도 않되며, 어떤 형태로서이든 신적인 것에서 마음을 빼앗는 말은 삼가하고, 오히려 영혼의 구원에 유익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오관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특히 눈을 제어할 것이다. 식탁에서는 절제와 극기로 행동할 것이며, 그동안에도 신적인 것을 묵상할 일이다. 천주의 모친이시고, 원죄없으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신심과 열렬한 공경을 즐거워할 것이며, 그분의 뛰어난 덕행들을 본받도록 노력하고, 수많은 위험 중에서 합당한 가호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 16 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열렬한 공경과 즐거운 기억을 신자들에게 조성하려는 서원

순회 설교직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일에 헌신하는 형제들은 크리스챤 백성들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거룩한 신비를 자주 묵상하고 열렬히 기억하겠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특히, 저녁에 통상적인 설교 뒤에 이를 행하게 할 것이다. 신심깊은 묵상은 30분을 초과하지 말고, 잘 준비한 말로써 안내해 나갈 것이다. 아침에는, 교리적인 강의를 하는 도중에 같은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거룩하게 또 유익하게 이 위대한 신비를 묵상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또 명확하게 인도하므로써, 너무 자주 또는 길게 하여 묵상하는데 괴로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 들에서 일하는 건장한 사람이나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묵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간단한 강의를 제공하므로써, 즉 흥적으로 열렬한 마음이 치솟게 하거나 기도로써 간구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한다. 충고는 바라는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고, 가르치는 방법은 이런 사람들에게 쉽고 간단하며 적당한 것

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를 참도록 권할 것이며, 이것을 실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열매와 공로를 일러주며, 최상의 보상을 설명하므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거토록 할 것이다. 고백 성사에서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사람의 차이에 따라 같은 점을 배려할 것이다. 설교직을 맡지 않은 사제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 선을 증진시키도록 힘쓸 것이다. 이런 사제들에게도 보다 쉽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특히 죄인의 고백을 들을 때, 교리를 가르치거나 혹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강의할 때, 그리고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 생기는 경우, 주위 환경에서 오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일에 임명되지 않는 사람들과 평수사들은, 그들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영예를 드리는 지향으로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매일 다섯번씩 신심있게 또 열심히 바쳐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구원적인 수도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열렬히 간청할 것이다. 이 위대한 일을 촉진하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목적을 달성하며,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크게 진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환경과 일에 따라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토록 오묘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써,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양으로써 증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 17 장

수도회에서 지키는 단식

수도회에서는 어느 단식도 규정하지 말 것이니, 교회가 신자들에게 명하는 공동 단식을 제외하면, 위반자는 대죄가 되기 때문이다. 대림절과 사순절 외에 우리 형제들은 한 주간에 3 차례식, 즉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단식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만일 수요일과 토요일이 의무적 축일이거나, 혹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음사가들의 축일,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성 베드로 사도의 주교좌 축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수도원에 속하는 성당의 수호 성인 축일,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 축일과 겹치게 되면 단식 규칙에서 관면할 수 있다. 금요일에는 1급 축일과 겹치지 않는한 단식은 지켜야 한다.

제 18 장

수도회에서 단식을 지키는 방법

형제들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수도회의 수도원 내에서 육류를 먹어서는 않되고, 다만 계란과 치즈만 먹는다. 단식일로 정해진 날에는 국과 사순절 음식의 접시로 만족해야 하며, 이밖에 채소와 과일 접시를 추가하는 것은 장상의 자유이다. 그러나 금요일에는, 만일 그날이 의무 축일이거나 앞 장에서 말한 축일 가운데 하나이거나 이외에도 성탄 8부, 부활 8부 내의 금요일이나 그리스도의 성체 축일과 겹치지 않는한, 국과 소량의 채소로 저녁 식탁을 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상이 형편에 어울린다고 판단하면, 과일과 치즈를 곁들일 수 있다. 대축일에는 3개의 반찬 접시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상은 주의깊은 사랑으로 음식물을 준비하고 또 각자의 요구가 분별있게 충족되게끔 배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할 때마다, 위에서 언급한 조항들을 허락해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제들은 불평하지 말고, 오로지 좋은 뜻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 날 크게 덕을 닦는다고 생각할 것이며, 무슨 이유로든지 비방하지 말 것이다.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죄짓

는 것 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 뺑과 포도주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할 것이다. 단식일에는, 저녁 식사로 단식이 될만큼 한개의 접시만 준비해야 한다. 단식 시간이 지나면, 적당하고 평범한 저녁을 들게 할 것이다. 어떤 경우나 이유든지 수도자들이 식당에서 대화할 수 없다. 비록 관계되는 외부인이 있거나 혹은 축일을 지킨다 하더라도 허락할 수 없다. 다만 식사 때 항상 영적 독서를 해야하나, 단식일의 간단한 저녁 식사 시간은 예외로 한다. 여행하는 형제들은 단식 규칙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은인들로부터 환대 받을 때에는, 《이 집과 이 집에 사는 모든이들에게 평화》라는 복음적 축복을 기도한 후, 그들 앞에 놓인 음식을 무엇이든지 먹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원 밖에서도 절제, 적당한 음주 그리고 예모를 지키도록 노력하므로써, 보다 쉽게 하느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어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적인 것으로 기쁨을 삼기 때문에 육적인 음식 맛을 쉽게 잊어버릴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표양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신법의 규정 외에도, 가능하면, 복음적 권고를 실행하는 것이 수도회의 목적임을 명심할 것이다. 형제들이 이 목적을 한결 쉽게 달성하려면, 자주 기도하고 절제하며, 겸손하고 육체를 엄격히 간수하며, 그리고 자신을 비하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마음을 하느님께로 들어올려 줄 것이며, 악마들의 간

교한 술책을 크게 막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기게 되면 대죄를 범한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교회의 계명으로 명하는 단식과 같이, 우리의 단식도 주의해서 또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따라서, 지방 장상이 비록 합당한 이유를 들어 단식의 관면을 준다 할지라도, 교회법적 단식 준수에서 관면을 줄 때 충분한 이유가 있는 바와 같이, 이와 대등한 긴박한 이유가 없는한, 단식 규칙에서 공동체 전체를 관면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거룩한 교부들과 교회 박사들이 단식에 대하여 기록하신 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이 육신과 영혼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쉽게 알아듣게 될 것이다. 성 대 바실리오, 성 요한 크리소스 뜻 그리고 성 레오 1세 교황이 알기 쉽게 이 주제를 다루셨다. 우리는 이 구원적인 행위의 다양한 힘과 크나큰 공덕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여기에 덧붙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제 19 장 수도회의 다른 영신 수련

다섯 시간을 육신의 휴식에 할애한 다음에, 하느님께 찬미가를 노래하기 위하여 매일 밤에 일어나야 한다. 성무일과는 장엄하고 신심깊은 목소리로, 합창하여 바칠 것이며, 각 구절마다 시간적인 간격을 두어 쉬게하므로써, 선포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므로써, 입술로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으로 노래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성서가 감미로운 음식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해야 한다. 성무일과를 성대히 거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무일과 전부를 다 바칠 때까지,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 일어서서 바쳐야 한다. 그러나 새벽기도의 경우 독서 때는 앓게해야 한다. 각 시과경을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깊이 숙이고 경건한 자세로 다음의 기도문을 바칠 것이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끓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외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도다. 정한 날에는 새벽기도 후에, 자발적인 편태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10월부터 4월까지, 한시간 동안, 그 나머지 달 동안은, 반시간 동안, 함께 거주하는 모든이가 거룩

한 묵상에 전념해야 한다. 그리고 성무일과 시간 중에는 장상의 허락없이 어느 누구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동절기에 는, 묵상 후에, 《주님의 모든 업적들아, 주님을 찬미하라》는 찬가를 부르면서, 몸을 덥히러 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각자의 방으로 가는데, 1시과까지 머물러야 한다. 혹시 누가 성령의 열기로 북받쳐서 기도를 계속코자 바라면, 장상에게 허락을 요청할 것이나, 장상은 청원자의 상황과 덕을 고려하여 청원을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10월부터 4월까지는 밤기도 후에, 3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고, 나머지 달에는 두시간 반 동안 쉰 뒤에 다시 일어나서, 1시경과 3시경을 창으로 바치기 위해 가야한다. 그 다음에는 한시간 동안 묵상하고, 미사 거행 시간이 되면, 미사에 참례한다. 그러나 수도회에서 무슨 직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30분 동안 묵상한 후에 성무를 집행할 수 있다. 일과표에 적힌 시간에 모든 활동의 순서가 적혀있는대로, 마지막 희생제사가 하느님께 봉헌되는데, 합당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참여할 의무가 있다. 6시경과 9시경 전, 그리고 종과경 전, 30분 동안을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침묵 중에 그리고 혼자서 기운을 북돋울 수 있다. 이런 시간이 지난 뒤에, 법적인 시과경을 창으로 바치고, 식탁으로 나아간다. 정한 시간, 같은 방법으로 저녁기도를 바쳐야 한다. 그다음 잠시 잠심에 잠긴 후에, 약 45분 동안 영적독서를 공동으

로 한다. 이것이 끝나면, 공부하거나 임무를 수행한다. 종 과정을 바칠 때, 형제들은 그 시간 전부를 거룩한 묵상으로 지내야 한다. 여행을 하거나 혹은 다른 일로 수도원 밖에 머물 때에는, 많은 시간을 묵상에 바치기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틈을 내어서, 특히 그들이 여행이나 다른 의무를 수행한 후, 별 지장이 없는 이른 아침을 택하여, 적어도 1시간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서는 않된다. 우리 형제들은 기도를 결코 빠트리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하고, 자신의 악습으로 주어지는 큰 선을 잊게되면, 중대한 악을 초대하게 되므로 급히 치료하여 만 한다. 모든 사제들은 거룩한 미사 성제 전에 티없는 마음을 갖추고, 또 성무에 임할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교회가 명하는 전례는 올바르게 또 공경하는 마음 자세로 거행할 것이다.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분명하게 또 예의 바르게 하므로써 말과 행동으로 신심과 성덕을 드러내야 마땅하다. 제사가 끝나면,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즉시 다른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봉헌한 제사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며, 하루 종일 하느님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불타오를 것이고, 또 한 성무를 집행하는데 더 잘 준비하고 더욱 보람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제 20 장 평수사들이 할 일

합창으로 새벽기도를 바치는 동안, 평수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꼬로나(화관)를 바친다. 즉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생애와 고난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주의기도 33번을 바친다. 1시과로는 같은 주님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의 성모송과 함께 같은 기도를 7번 바친다. 3시과로는 주님의 편태를 묵상하면서 3번, 6시과로는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모욕받으심을 묵상하면서 3번, 9시과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참으신, 십자가에 못박히심, 고뇌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같은 기도를 8번 바쳐야 한다. 저녁기도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통고를 묵상하면서 7번을 바친다. 끝으로, 종과경으로는 주님의 오상과 무덤에 묻히심을 기억하면서 5번을 바친다. 경건한 묵상은 다른 것처럼 해야한다. 그러나 아침에는, 기도와 거룩한 제사에 참여한 후, 각자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야한다. 모든 축일에는 관례대로 계속되지 않는 만큼, 고백성사로 양심을 깨끗이 한 후에, 거룩한 미사성제로 보양되어야 한다. 금요일에도 이와 동일하게 행할 것이다. 사순절과 대림절에는, 일주일에 3번 그

리스도의 몸을 받아모실 것이나, 장상이 다르게 명하지 않든지, 혹은 영적 지도자의 다른 권고가 없어야 한다.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는 정확하게 또 성실하게 수행하고, 수도회의 짐을 자발적으로 지려고 해야 한다. 사제들을 하느님의 대리자들로서 존경해야 한다. 겸손하고 순명하는 사람, 그리고 수도자의 청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수도회의 재산을 성실하게 지키고, 하느님의 소유로 간주해야 한다.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고 만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파괴되거나 더욱 악화되어 간다면, 그들은 하느님께 마땅히 셈바쳐야 함을 상기시킬 것이다. 가끔 자신이 받아들인 수도회의 목적을 깊이 생각해보게 하고, 또 그에 대한 그들의 소망과 행동들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제 21 장 기 도

묵상은 일반적으로 신적인 속성에 대하여, 그리고 완덕,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신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부터 수도자의 모든 완덕과 성덕의 최고 스승을 찾게되고 또 진보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뛰어나야 하고, 생동적이고 활동적이며 항구한 믿음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사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쉽게 악습을 끊어 버리고 덕을 닦게되는 것이다. 형제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에 대하여 특별한 공경심을 기르도록 인도되어야 하며, 자주 제단의 성체를 방문하고, 마땅한 찬미로 흡송하며,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자주 성체를 모실 열망을 지닐 것이며, 내밀하게 또 영적으로 성체와 일치하고 성체를 모신 마음으로 홀로 계시는 하느님과 생활하며,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성직자들은 한주일에 3번 거룩한 미사성제로 보양되나, 계속되지 않는 모든 축일에는 장상의 자유 재량이나 혹은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따라야 한다. 가능하면 티없이 깨끗하고 가장 거

록한 생활로써 더욱 맞갖게 미사를 봉헌해야 할 것이다. 열렬한 묵상으로 합당해야 준비할 것이며, 또 덕행에 대한 뜨거운 표양, 특히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겸손에서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 성체를 모신 후, 천사적인 열정으로 용해되어, 이처럼 위대한 직무를 주심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것이며, 더욱 완전한 생활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도 감사심을 드러내야 마땅할 것이다. 평생 동정이신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를 합당한 영예로 공경해야 하고, 특별한 수호자로 모시며, 당신 성자의 고난과 죽음에서 당하신 가장 예리한 고통을 항상 기억할 것이며, 말과 표양으로 마리아 공경을 함양시켜야 한다.

제 22 장 학문의 연구

일과표에서 정해진 시간에, 학문 연구 활동을 하고, 그 동안 공부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모두가 방에서 영적독서를 할 것이나, 특별 성찰을 먼저 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의 권고에 따라, 누구든지 자신의 영적 향상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책을 사용해야 한다. 저녁기도 후에는, 아침처럼 다시 공부할 것이다. 어느 관구에서든지, 한 두 수도원을 학문 연구를 위하여 따로 지정하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철학과 신학을 연구케 하므로써, 영혼을 돌보는데 더욱 적합한 수양을 쌓고 주님의 포도밭에서 힘을 다하여 일하게 해야 한다. 수도회의 각 학교는 천사적 박사의 견고한 학설을 굳게 고수하고 모든 선생들이 그것을 엄격히 전달해야 할 의무를 진다. 공부 자체는 6년간 계속될 것이나, 그 중에서 5년은, 덜 필요한 의문들은 제체두고 또 신학문과는 거리가 좀 멀어 지더라도, 철학과 신학에 할애되어야 한다. 6년째 되는 해에는 성서와 거룩한 교부들의 책을 읽고 묵상하는데 바칠 것이다. 그동안에, 개인에 따라 또 학문의 정도에 따라, 임시로 사도적 직무에 임하게 하므로써, 즉 모든 공부에 대

한 전반적인 시험을 그해 연말에 치르게 하여, 각자의 재능과 적성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하며, 또 실력에 따라 이 웃의 구령을 위하여 직무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시험은, 자신이 거주하는 관구에서, 수도회의 총장과 그 참사위원들이 선발하는 3명의 시험관 앞에서 치루어야 한다. 또한 총장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임명한 다른 사람도 참석해야 한다. 다른 관구에서, 시험관의 선출은 관구장과 그 참사회에 속하고, 자신이 직접 혹은 자신이 임명하는 다른 사람이 시험에 참관해야 한다. 이런 시험 외에는, 매년 위에 언급된 방법으로 선출되는 두명의 시험관이 수도원의 장상 앞에서, 특별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데, 주로 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시험한다. 이렇게 하여 알게된 학생의 성품에 따라, 총장의 동의를 얻어, 혹은 다른 관구에서는 관구장의 동의를 얻어서, 재능있는 학생은 공부를 계속하도록 선발하고, 둔하고 게으른 사람은 물러서게 해야 한다. 학문을 위하여 택한 수도원에서, 공부가 있는 날에는 밤 묵상이 3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학문 추구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같은 규정이 아침과 저녁 묵상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강사들은, 대축일과 방학 동안을 제외하고는, 가르치는 동안에, 밤 기도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그밖의 것들은, 총장이나 관구장의 판단에 따라, 적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장상은 사랑으로 치신하며, 자부

적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나가기 전에 소량의 빵과 포도주로 위장을 보양
토록 해야한다. 그러나 완덕의 정신이 계속되는 공부 중에
서도 냉담하지 말아야 하고, 수도회의 모든 수도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년에 한번, 8일 내지 10일
동안, 장상이 가장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영신 수련
과정을 경건하게 또 열렬하게 이수해야만 한다. 만일 수도
회에서 5년 동안을 훌륭하게 지나지 않았으면, 성직자망자
들이 성품(聖品)을 받도록 추천되어서는 않된다. 만일 그
들이 덕행에서 뛰어난 표양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의 서품
은 총장이나 관구장의 판단에 따라 연기해야 한다. 의례적
인 공부에 임하지 않은, 이들 성직자망자들은 특별 배려로
교화 시켜야 하며, 엄격한 규율로 다스리고, 장상의 드러
난 허가 없이는, 심지어 수도자들에게도 설교하지 못하게
하며, 이때 동료들이 덕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박한 요구
가 없는 곳에라도 그들을 보내어야 한다.

제 23 장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과 거룩한 강론자들의 주요 의무

최소한 우리 수도회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택되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자신의 설교에서 거만하고 또 멋부리는 말씨를 사용하므로써, 애매하게 되거나 또는 일반 사람들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게 해서는 않된다.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이란 빵을 작게 떼어내는, 명쾌하고 똑똑한 화법을 구사하므로써, 설교의 효과가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풍성한 효과를 내므로써 하느님의 영광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하느님의 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을 설명한 뒤에는, 고백 성사를 통하여 양심을 깨끗이 하는 방법, 그리고, 동시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얼마나 큰 존경과 성성을 가지고 모셔야 하는지를 열렬히 가르쳐야 한다. 전통 신앙의 신비로써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가장 무관심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우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흡족하게 여기실 이 일이 이처럼 하찮은 땅에서 날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사순절 설교 의무를 그들에게

지우는 대신에, 다른이에게 맡기고, 그들은 이 기간에 한 적한 수도원에서 하느님께 몰두하게 하므로써, 부활절 후에 이웃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순회 설교는 물론 수도회 고유의 관례적인 행사를 더 큰 사랑으로 수행토록 해야한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순절 기간동안 수도회의 고유한 의무를 수행케 할 수도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죽음의 신비를 열심히 묵상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가르쳐야 한다. 스스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설교함과 동시에, 신적인 것의 묵상이 수도자와 성직자들에게만 고유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위험한 오류를 지적해내고 반박해야 한다. 적절한 권고와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항구한 신뢰심으로 무장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기도 중에 초자연적인 빛이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것이니, 왜냐하면 그것으로써 악마와 세속의 간교한 술책을 더 잘 알게되고, 탁월한 덕행과 모순되는 악습의 추함을 보기 때문이다. 또한 천주의 모친이신 동정 마리아를 열심히 공경하며, 거룩한 장소와 사람들을 합당하게 존경하도록 크리스챤 백성들을 설복하는 일 역시 우리 수도자들의 주요 의무 중의 하나이다. 적은 말로 많은 것을 말할 것이며,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물을 고려하여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이 모든 일을 열심히 이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악습과 남용은 최선을 다하여 물리쳐야 한다.

제 24 장

순회 설교직을 수행하는 방법

순회 설교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사도의 증언에 따라,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똑같은 선물을 받지 않았으므로, 총장이나 관구장이 위임하는 우리 수도회의 두 신학자들이, 먼저 그들의 지식이 충분한지 시험한 뒤, 그리고 그들의 설교와 다른 활동을 조사하여, 가능하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에게만 순회 설교직을 수행하는 이토록 중요한 임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때 후보자들은 자신의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우기, 신학자 자신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또 비밀히,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총장이나 혹은 관구장의 승락을 얻지 않고는 결교 순회 설교직에 임할 수 없다. 먼저, 우리는 직무의 거룩함과 중요성 그리고 목적을 측정해보고, 그들의 의무에서 원하는듯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빠트리지 말 것이며, 또 만일 백성들에게 덜 완전하고 덜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형제들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임무보다 더 앞세우는 어떠한 영신 수련 규칙도 규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수도회의

한적한 수도원에서 모든 형제들이 맨먼저 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음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직무에서 힘닿는대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적어도 30분을 기도에 할애 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무일과를 바칠 것이며, 열심히 거룩한 미사성체를 봉헌하고, 만일 어쩔수없는 장애가 없다면, 사전에 또는 사후에, 일정들을 심사숙고해서 수도자들 스스로 수습해야 한다. 모든 것이 거룩한 직무에 어울려야 한다.

§ I 떠나기 전에 해야할 일

순회 설교를 위하여 선발된 형제들이 한적한 수도원에서 떠나기에 앞서,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 무릎꿇고 본 회헌을 읽고, 실행할 것을 거기서 약속해야 하며, 수여되는 사본을 그들이 지녀야 한다. 각 순회 설교를 시작할 때, 그들은 회헌 읽기를 되풀이할 것이며, 하느님께 신뢰심을 두고 굳게 바랄 것이고, 또 만일 회헌의 규정들을 충실히 또 올바르게 지키고자 한다면, 회헌에서 나오는 그분의 은총을 억누르기 보다는, 오히려 이런 도움을 적절히 용하므로써, 일의 목적을 즐거이 달성할 것이다.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은 오래 전에 예언자 말라기사를 통하여

당신의 신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나는 그와 계약을 맺고 그가 평화를 누리며 잘 살게 해 주었다. 나를 두려워하며 내 이름을 어렵게 알아 나를 공경할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입으로는 참된 법을 가르치며 입술에는 거짓을 올리지 않게 하였다. 나와 함께 잘 지내며 올바르게 살며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였다. — 말라기 2장 5~6절.

§ II

순회 선교자의 선발과 순회 설교 때 수행할 주요 활동의 분담

순회 설교에 임할 형제들은 두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필요성이 요구되거나 지역에서 필요하게 되면, 더 많은 수효가 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총장이나 관구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장상으로 활동하고, 다른이들은, 수도원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순명할 것을 약속해야 하며, 모든 순회 설교를 시작할 때 자신의 약속을 갚으해야 한다. 순회 설교가 시작되면,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을 대리로 선출하여, 한명은 불화를 진정시키는 일을 맡기고, 다른 사람은 몰려오는 군중을 정리하게 한다. 만일 우리 형제들 중의 하나가 분쟁을 말리

거나 적과 화해시키는 일을 맡게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평화스럽게, 또 현명하게, 항상 자신을 제어하므로써, 어느 누구에게나 해로운 말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제아무리 번거롭고 또 흥분한다 하더라도 화내지 말아야 한다. 훼방과 어려움을 인내심있는 사랑으로 물리치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한번에 않되면, 두번 세번, 성공할 때 까지 열심히 도전해야 한다. 그런 후에도 만일 그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정과 인자함을 지니고 완고한 이들을 하느님께 맡겨드릴 것이다.

§ III

은인들의 집에서 음식 먹는 것

순회 선교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은인들의 특별한 집에 머물게 되어, 음식을 들게 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크리스챤 사랑이 일꾼에게 제공하는 음식이라도 여자들과 함께 결코 먹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장상이 관면주리라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침묵을 지킬 것이다. 음식을 먹은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할 것이다. 그동안에 만일 순회 설교와 관련되어 처리할 일이 있으면, 몇마디 말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도 좋다. 그러나 만일 이치에 합당치 않거나 혹은 규정을 어긴 일이라면 분노하지 말고, 인내와 겸손으

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비록 신심이 있고 예모가 단정해 보이더라도, 집안에서 생활하는 여자들과는 대화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영혼의 구령에 관한 일을 간절히 이야기하려 해도, 병들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충분한 이유로 방해받지 않는 한, 고백소나 혹은 성당의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들어야 한다. 하여튼 어디서든지 그들을 만나지 말고, 친근하게 맞이하지도 말것이며, 시편을 노래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더욱 삼가할 것이다.

§ IV

어떻게 서로 처신해야 하는가

순회 설교 때에는 예모있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항상 유익한 일을 두고 대화하고, 맡은 직무를 가능하면 올바르고 거룩하게 수행하는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말수는 적고 또 절제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하자고 제안할 때, 심지어는 장상 형제가 제안하더라도, 알맞게 진행할 것이며, 동료로부터 즉시 대답을 요구하지 말 것이다. 일을 깊이 생각할 자리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느님께 그 일을 의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대답이 의견을 요청한 자신의 뜻과 기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말고, 또 슬픈 표정을 짓지 말

것이다. 만일 누가 무슨 일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불만이 있는줄 알면, 즉각적인 치료제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과실이 아닐진데, 즉시 대처하지 말고 형제적인 방법으로 또 적당한 시기에 교정할 것이다. 저녁에, 침실로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부드럽게 또 평화스럽고도 예모있게 권고할 일이다. 논쟁하지 말고, 교화받는 자는 평계를 대지말고, 오히려 충고자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신할 일이다. 양심 성찰 때에 그는 겸손되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열심히 고치기로 작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때에는 과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는 거룩한 일이라도 논쟁하지 말 것이다.

§ V

완전히 실행해야할 권고

만일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께서 이같은 지식을 가진 형제들로써 수도회를 늘게 하실 양이라면, 그들은 이단자들을 물리치고, 불신자들에게 크리스챤 신앙을 전하며, 교황 성하께서나 신앙교리성성이 먼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고 명하는 곳 이면 즉시 가서 무엇이든지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우리들이 수도원을 가지고 있는 교구에서 주교와 교구장들의 소망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혼들의 영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임무를 맡기기 위하여 초청할 때마다,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수도회의 규정에 따라, 순회 설교에 임하고, 총장이나 관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 준비하거나 혹은 주교나 교구장이 바라는 바에 따라, 영신 수련으로, 성직자, 수녀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고, 자질있다고 판단되는 일꾼들을 파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일에 봉사하도록 위에서 언급한 장상들로부터 부름받고 파견된 사람들은 마땅한 준비와 자발적인 마음가짐으로 임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할 것이며, 그들이 가는 곳이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이든지, 시골이든, 촌락이든, 섬이든, 그리고 가난하든, 옹색하든, 분쟁 지역이든 추운 지역이든 상관없이 가야한다. 더욱 무관심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지역에서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 일하게 될 때, 그들은 이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만일 강하게 반대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만나면, 좌절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인내심을 가지고 침묵 중에 일을 수행할 것이며, 비애와 불평을 떨쳐버려야 한다. 나쁘게 대접받고, 부당하게 대하거나, 혹은 몇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마음의 한결같은 평정과 예모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지혜롭고도 부드럽게 권고하여 영혼의 선을 추구하는 기회를 잃지 않으므로써, 그들 자

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이다. 만일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수효의 고해신부를 요청하면,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겸손하게 제안을 드려야 할 것이다. 만일 반복되는 간청이 성과가 없으면, 문제를 더 이상 재촉하기보다는, 오히려 평온과 평화 중에 그들의 사도적 활동을 계속하고, 불평하거나 나무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 만일 백성들이 전달된 권고를 순순히 따르지 않거나, 고백성사로 죄를 속죄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하더라도, 그들의 의무를 끈기있게 가르쳐주며,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겸손되어 따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만일 동료들이 설교에서 지쳐 돌아와서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고백성사를 줄수없게 되면, 그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다른 형제가 자리를 보충해야 한다. 알력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 되,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된 생각과 판단을 유지하여 합당하게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들이 일치하여 하느님의 집에서 거닐었더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도처에 그득하도다》(In domo Dei ambulavimus cum consensu, facti bonus odor Christi in omni loco.) 이것을 보다 쉽게 얻으려면, 할일을 두고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일에서는 지혜가 돋보이게 할 것이며, 지혜로운 의견으로 장래를 예견해야만 한다. 동료들은 성무와 활동에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준비

하므로써, 업무에 부족함이 없게 하며, 혼란이나 가당찮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는, 활동 자체에 지혜롭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그 문제를 의탁해야 한다. 순회 설교가 끝난 후에라도, 그들이 한 일들이 백성이나 장상들을 기쁘게 하였으면 그 만이지 교회 당국이나 일반 신자들에게 무엇을 청하지 말아야 한다. 행한 것으로 만족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야지,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신익 외에 그 무엇을 찾아서는 않될 것이다. 떠나기 전날에는, 여행을 안내해주도록 은인들에게 겸손되어 청할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그와 함께 출발하되, 다른 일행들은 애써 피할 것이고, 여행 중에는 침묵을 지키면서, 신적인 것을 묵상하면 보다 쉽게 마음을 편히 쉬는 것이 될 것이다.

§ VI

한적한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것

순회 설교에서 수도원으로 돌아오면 장상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마음을 쉬게 할 것이다. 장상들은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해온 이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필요 한 기간만큼 그들의 몸과 마음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배려해

야 한다. 같은 장상들은, 비록 강력히 원하고 또 요청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곳에 갈 필요성이 없는한, 순회 선교지에서 돌아온 이들을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 자발적으로 수도원에 머물기를 묵인하는 형제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아래 엎드려 한없는 평화와 열렬한 묵상에 잠겨야 한다. 6일 내지 8일간 육신의 힘을 회복하는 적당한 휴식을 취한 후, 그들은 평상시의 관습대로 일터로 가야한다. 장상의 의견에 따라 지정하는 동료 없이는 아무도 수도원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

제 25 장 침 묵

저녁에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기도와 함께 로사리오 기도를 바친 후, 방울로써 침묵을 알리고, 다음날 아침 규정된 기도와 미사 참례까지 계속되다가, 그 이후에 끝난다. 또한 침묵은 정오 휴식 후에도 요구되며, 저녁기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 시간에 아무도 감히 말해서는 않된다. 꼭 필요 한 경우에는, 낮은 목소리로 해야한다. 나머지 시간에는, 예컨데 학교, 부엌, 정원 그리고 수도회를 위한 일이 이루어지는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거나 목적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으나, 불필요하거나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누구를 불러야 할 경우에는 형제들끼리 정해둔 표시로 하든지, 혹은 형제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찾아야만 한다. 계속적인 침묵은 가대석, 식당 그리고 침실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형제들은 쓸데없이 이런 곳에서 결코 말하지 말것이며, 주장이나 그의 대리자가 그와 함께 대화하도록 방으로 부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형제가 있으면 그를 찾아보도록 허락할 것이다.

제 26 장 영혼의 휴식

매일, 점심이나 저녁식사 후, 혹은 단식일에는 저녁식사 대신 먹는 간단한 식사 후 공동으로 영혼의 휴식이 있어야 한다. 이 시간에는 조심성 있게, 즐겁게, 기쁘게, 신중하게, 그리고 합당한 모든 의지를 스스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허황된 말은 피하고,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고, 논쟁을 피하며, 자기 주장이나 언쟁, 끝내는 형제적 사랑을 헤치는 무슨 일 이든 피해야만 한다.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는 45분 동안 영혼의 휴식을 취한다. 사제들과 서약한 성직 지망자들 그리고 평수사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모든 일에서 형제적 사랑이 더더욱 생기띄고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성직 지망자들이 서약하지 않았거나, 또 서약자가 될 시기가 되지 않았으면, 즉 그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중이라면, 휴식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평수사들은 부엌, 식당 그리고 기타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휴식을 취해서는 않된다. 공동 휴식에는 품성, 품위 혹은 장점이 합당하지 않으면, 외부인은 결코 합석해서는 않된다. 즉 관면을 지혜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점심과 저녁 휴식 사이, 여름에는 한시간 반, 그리고 겨울에는 약 1시간 동안,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물러가서

스스로 쉬게 할 수 있다. 한주일에 한번, 윤리신학 강의가 있어야 하는데, 각자가 의문있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겸손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잡음이나 언쟁이 없어야 한다. 모든 축일과 그리고 목요일에는, 장상의 의견에 따라, 끝기도 전에 단정하게 영혼의 안식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마음을 혼란시키는 오락이나 다른 행사는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유익한 주제를 두고 말해야 하며, 이런 종류의 오락도 영혼을 쉬게 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지, 반대로 신심의 정신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목요일 아침에는,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정오 후에는 자유이다. 축일에는 각자 영신 수련이나 신심 서적을 읽으면서 아침을 지내는 것은 자유이다. 공동 행사 혹은 이웃을 위한 특별한 자선 활동에서 남는 시간은 경건하게 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침묵은 사랑하고, 게으름을 떨쳐버릴 일이다.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묵상은 저녁기도 후에 하고, 저녁 휴식도 한시간까지 연장할 것이다.

제 27 장
식당에서 할 일

식당에서는 예모있게 침묵을 지키고, 눈을 내리뜨고, 그 사이에도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한다. 이것을 보다 쉽게 행하여 영적 이익을 얻으려면, 독서를 열심히, 주의깊게 들어야 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식사 중이라도 겸손, 절제 그리고 신적 묵상을 하는 일이다. 식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장상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야 한다. 각자 원하는 바를 고려하고, 또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면서 매사가 올바른 질서에 따르게 하는 일이 그의 의무이자 영역이다. 쓸데없이 누구도 자리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먼저 먹은 사람은 잠시라도 거룩한 묵상에 참겨야 한다. 은인들이나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세속인이 식당에 들어올 수 없다. 특별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은 예외이다.

제 28 장

매일 저녁 장상이 해야 할 업무의 분담

매일, 저녁, 장상은 다음 날에 수행할 업무를 분담시키고, 모든 일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되게해야 한다. 영혼의 휴식이 끝난 후, 모든이들이 모이게 되면, 장상이 세속을 경시하고 수도회에 위탁하도록, 그리고 무엇 보다도 하느님의 사랑과 서로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강복을 덧붙인다.

제 29 장 수면과 밤의 휴식

장상의 강복을 받은 후, 형제들은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곳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로사리오기도 5단을 바치는데, 이때 관례적인 다른 기도가 함께 따른다. 즉, 주의기도, 성모송,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임태 축일의 교송, 《또따뿔크라》(Tota pulchra es Maria), 성 미카엘 대천사, 수도원의 수호 성인, 그리고 죽은 은인들을 위하여 시편 130(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등이다. 이런 기도가 끝나면, 양심성찰을 하고, 그리고 장상이 모든이를 향하여 성수를 뿌리며, 침묵을 명한다. 그다음에 모든이들은 밤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재차 일어날 때까지 방으로 간다. 누구라도 겉옷을 벗어서는 않된다. 침대에 단정히 누워, 하느님과 천사들의 현존을 생각하며, 귀찮은 분심과 괴로운 불면을 물리치므로써, 더욱 평안히, 보다 쉽게 쉴 수 있을 것이다. 대저 악마는 모든 술책을 다 동원하여, 예기치 못하는 시간에 하느님의 종들이 불면에 시달리게 할 것이니, 자유로운 오관으로 신적인 것을 묵상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주님께서 악을 물리쳐 주시도록 간구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성호로써 간교한 원수를 물리치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것이다. 장상은 밤에 방들을 둘러보고, 형제들이 단정하게 누워자는지 살피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문을 잠글수 없고, 장상에게 이 권한을 거절할 수 없다.

제 30 장 수도회의 장상 선출

6년마다 수도회의 최고 장상이 선출되는데, 총장이라 부르며, 우두머리이고, 모든 사람, 수도원 그리고 수도회의 모든 성당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그 자신 또한 모든 회헌을 따라야 하고, 수도자적인 규율에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신의 표양이 더 훌륭해야 한다. 그는 모든 성당과 수도원을 방문하며, 회칙과 회헌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격에 어긋난 것이 드러나면 즉시 대응책을 강구하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합당하게 진행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회원들의 건강은 우두머리에게 크게 달려있으므로, 선거인들은 인간적인 모든 사유를 무시하도록 참으로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전 수도회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판단과 노력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겸손한 기도로써 하느님의 빛을 간청할 것이다. 이러한 지향으로,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3일 동안 수도회의 모든 성당에 현시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공적으로 공영케 하므로써, 우리 주님은 무수한 기도를 보시고, 보다 쉽게, 원하시는 사람을 허락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일에서 모든 일이 성숙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

겠끔, 다음 사람들만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총장과 그의 참사위원 2명, 본부 사무국장, 관구장과 그
참사위원들, 그리고 다른 때 총장이었던 사람. 이 모든이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이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가장 훌륭하고 가장 편리한 수도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만일 비용 부담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수도원들이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총회는 선거가 실시되기 전 적어도 3
개월 전에 회람을 각 관구에 보냄으로써 통보해야 하고, 관
구장들은 참사위원들과 다른이들에게 알리며, 모든 일이 지
혜롭고도 편리하게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특히 여행길이 먼
곳이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이들이 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처럼 일이 정리되면, 선거인들이 정한 날, 적당한
장소에 모이고, 성령께 기도한 뒤에, 각자 비밀히 서면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다음, 그 직책에 선출된 형제는
두 보조자와 검사원과 함께 투표지를 넣은 그릇에서 끄낸
다. $\frac{2}{3}$ 득표가 법적인 선출의 유효표이다. 그들이 읽은 후에
공시하고, 총회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출된
총장은 모든이들로부터 순명서원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대
리자로 간주된다. 그런 다음, 모든이들이 성당으로 줄지어
가서, 이런 목적으로 성체를 현시하고, 《떼 데움》을 함께
엄숙하게 노래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같은 총회에서,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2명의 총장 참사위원을 선출하고,

그다음에는 총장으로 선출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같은 자질을 소유한 사람을 본부 사무국장으로 선출한다. 이 모든 이들은 총장 다음 서열에 오르고, 총장에게만 직접 속하게 된다. 참사위원의 동의가 없으면, 수도회의 관리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를 총장이 집행할 수 없다. 이 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들의 결의투표권을 갖어야 한다. 총장이 사망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6년 임기 가운데 일부를 비우게 되면, 제 1 참사위원이 수도회의 관리를 맡고, 다른 한 사람은 제 1 참사위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합당한 사람이 부총장과 참사위원 및 본부 사무국장에 의하여 총회시까지 승계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이 경우가 다른 일에도 합당하게 적용되어야 하니, 예컨데, 비슷한 상황 아래에서, 참사위원들이 다른이의 자리에 임명되는 것이다. 만일 본부 사무국장이 사망하면, 다른이의 대행은 총장과 그 참사위원들에게 속하게 된다. 총장의 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총장이 다가오는 3년 말까지 수도회를 관리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각 관구는 관구장이 관리하되, 2명의 참사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3년마다, 각 관구장은, 관구 내의 각 수도원에, 적당한 시기에, 서한을 보냄으로써 관구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관구장 자신 외에도 그의 참사위원들, 각 수도원의 장상들이 소집되어야 하며, 모든이 가

투표권을 갖되, 수련장도 함께 하여, 수련소에서 총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방법으로 관구장과 참사위원들이 선출되며, 그 직책에 관계되는 업무에서 결의 투표권을 가지고, 앞서 말한 관구장에게 직접 예속되며, 고위직에 올라야 한다. 이외에도, 각 수도원의 장상과 수련장도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총회는 총장에게 알리지 않고 소집되어서는 않되며, 총장 자신이나 혹은 위임받은 다른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관구와 관련되는 무슨 법령을 선포할 필요가 있으면, 총장이나 그 대리자의 승인이 없는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성당과 수도원을 방문하는 것은 관구장에게 속한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총장의 경우도 자신이 직접 하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은 자유이다. 총장이나 관구장은 또한 수련장에게는 보조자, 각 원장에게는 부원장을 임명해주어야 하며, 공석이거나 혹은 행동의 장해가 있을 때, 그를 보좌하여 그 자리를 보충할 것이다. 그리고 수련장이 초심자가 아닌 한, 그는 장상 다음에 자리해야 한다. 만일 무슨 이유로 인하여 관구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3년 이내에서, 그의 제 1 참사위원이 관구의 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참사위원은 부관구장과 그의 참사위원과 함께 총장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사위원 1명이 사망하면, 다른 사람은

관구장과 그의 참사위원과 함께 같은 총장이 대행 해야 한다. 또 어느 장상이 공석이 되면, 다른 사람은, 참사위원들의 투표와 함께, 같은 관구장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만일 어느 수도원이 총회 이후에 설립되면, 그 장상은 총장이나 혹은 관구장이, 그의 참사위원들과 함께, 임명해야 한다. 수도회의 영적 이익이나 혹은 시간과 상황이 요구하면, 총회나 관구 총회에서 선출되는, 위에 언급한 어느 임원이든지, 한번에 한하여 겸직할 수 있다. 누구든지 수도회에서 적어도 10년을 훌륭하게 지내지 않은 사람은 총장, 본부 사무국장, 관구장, 참사위원, 장상, 그리고 수련장을 맡거나 선출될 수 없다.

제 31 장

지방 수도원의 장상과 그 관리

한적한 수도원의 장상은 수도원장이라 부른다. 총장이나 관구장에 의하여 선발되는 수도원장은 증서를 받고, 1년 기한부로, 확인하든지, 혹은 연장되면, 매년 그 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같은 총장, 혹은 관구장은, 적어도, 참사위원 1명의 동의를 얻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연중 연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교체하는 것은 자유이다. 모든 형제들은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응하며, 수도자적 완덕의 길에서 자신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느님이 뽑아주신 사람으로 간주해야 하다. 그들은 그의 면전에서 일어서야 하고, 이야기하면 주의깊게 경청하고, 그의 명을 겸손하게 예모 있게 순종하며, 그리고 자신의 뜻을 그분의 의지에 자발적으로 예속시키며, 하느님이 항상 그분 안에 계심을 생각하고 존경해야 한다. 어린이들처럼 그의 지도를 받도록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들이 장상의 명을 받고 실행할 때, 비록 때로는 분별없이 보이고 또 자신들의 의견과는 반대되는듯 보일지도라도,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평온함이 없으며, 더 이상 만족할게

없다고 생각하면, 단순과 겸손을 얻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일 것이니, 수도원장이 자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순명을 시험키 위함이다. 하느님 자신도 이외 같은 명을 허락하시는 것은 순종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수도자적 완덕을 증가시켜서 그들 자신의 원의를 수도원장에게 예속하고, 온순하며 단순하고 끝내는 원욕에 죽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 움직여지든지, 그들은 마음이 상하시고 또 처벌하는 하느님을 모시지 않도록 장상을 비방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완고하고 비방하는 자가 발견되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형제들은 아버지처럼 그를 믿고 신뢰심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며, 필요한 것을 일려드리고, 내밀한 마음을 일어보이며, 그들의 불안한 마음 악마의 유혹 그리고 괴로운 생각들을 말씀드려야 한다. 이것을 거룩하게 이행할 때마다 그들은 덕행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이 주시는 알맞는 도움을 받게 되어, 위로 뿐만 아니라 충만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순회 설교직이나 수도원 외부에서 수행하는 크리스찬 사랑의 다른 봉사에서 돌아올 때, 특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행한 일을 보고하고, 공로를 더하며, 의혹을 해소하고, 또 만일 동료 사이에서 다소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적절하게 대처하고, 악을 행한자에게 악을 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게으른자가 힘을 얻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다. 장상들은 이같이 중요한 직무를 화 잘내는 사람, 기분이 언짢은 사람, 혹은 다른 악습으로 물든 사람, 또 무슨 이유로든지 놀라게 하거나 악표양을 줄 기회를 제공하는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영성생활의 주요 스승은 총장이나 관구장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고, 만일 누가 의혹이나 어려움이 있으나 장상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적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어 보여야 한다. 하느님의 은총을 신뢰하는 장상은 온 가족의 빛과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다. 회칙을 열심히 실행하며, 다른 이들이 같은 열의로 실천하도록 성실하게 돌보아야 한다. 과오와 게으른자들은 아버지답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고쳐주고 권고하며, 과오를 벌할 때에는 규율에 사랑을 합치고, 엄격하기보다는 한결 가벼운 처방을 택하며, 항상 지나친 엄격은 피하므로써, 날로 수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는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므로써, 그는 보다 쉽게 원하는대로 그들을 지도할 수 있고, 동시에 그들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순명을 명하게 되는 것이다. 권위는 애정을 가지고 행사하고, 개인함과 항구심에 인자함을 더하고, 지혜와 성숙함이 결코 결여되어서는 않된다. 이렇게 하므로써 그는 보다 쉽게 회칙과 회현들을 실행할 것이다. 어디선가 언급한 공동 성찰은 이러

한 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그것을 자주 행하고, 또 만일 필요하다면, 매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행하는 것은 장상의 의무이며, 어느 형제 하나도 빠지도록 허락할 수 없다. 이때문에, 모든 장상에게 매일 이것을 부과하는 것은 총장의 의사에 유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주일에 두번, 이 성찰은 총장이나 혹은 자신이 임명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장상이 특별하고도 비밀로 이루어진 대화에서 들은 것들은 불가침의 침묵으로 비밀에 붙여야지, 어떤 방법이나 표시로 누설해서는 않된다. 만일 덕행과 기도에 스스로 열심한다면, 그가 형제들을 안전하게 또 지혜롭게 크리스챤 완덕으로 인도하는, 신적인 가르침의 빛이 없을리는 만무할 것이다. 양성 지도자와 그의 대리자 그리고 수도회의 다른 원장들은 비밀을 엄수하는 이 법칙을 지켜야 한다.. 장상은 자주 방들을 방문할 것이다. 또한 평수사들이 크리스챤 교리 뿐만 아니라 우리 회헌과 정규 규율을 교육받도록 특별히 배려할 것이다.

제 32 장

금요일의 회의

금요일마다 저녁기도 후, 모든 형제들은 회의장에 모여 성령께 기도하고, 각자 자신의 과오, 혹은 회칙과 회헌의 위반 사항을 고백한다. 장상은 합당한 권고를 한 뒤에, 과오에 비례하여 별을 부과한다. 다음에는, 성직지망자와 평수사들은 제외하고, 만일 필요하면, 성품을 받은 사제와 다른 사람들이 제안된 일을 다루며, 각자 자기 의견을 경건하게 또 견고한 마음으로 제시한다. 만일 성직지망자나 평수사들이 수도회의 법령과 수도자의 규율에 반대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비밀로 장상에게 통보하여, 그가 좋은 시기에 악을 제거케 하므로써, 그냥 묵인하거나 지나치지 않으므로 다른이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게 해야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적어도 한달에 한번은 방으로 그를 찾아갈 수 있으며, 아무것도 보고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게 적당한 충고를 청한다. 과실에는 사랑과 지혜로써 꾸짖고, 개인적이거나 드러나지 않는 한두번의 과실은 비밀로 처리하며, 만일 그 악이 공개되어 드러나게 되면, 회의에서 공적으로 교정할 것이며, 고위 장상의 충고와 더불어 지혜롭게 채택된 처방은 가장 유익하고 적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 33 장

여행하는 방법과 세속일을 절제함

장상이 승인한 이유가 없든지, 동행을 승락하는 동료가 없으면, 아무도 수도원을 떠날 수 없다. 여행할 때에는 힘을 다하여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단정하게 걸어갈 것이다. 만일 필요성이 있거나, 말을 사용할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혹은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장상의 승인이 없는한, 이렇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승인받아야 한다. 떠나기 전에는 허가해준 장상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돌아와서도 이와 같이 요청할 것이다. 만일 여행이 길면, 동일한 허가를 총장이나 관구장으로부터 얻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고 날인되어야 한다. 도중에, 여자와는 절대로 동행하지 말고, 가능하면 세속 사람들과도 동행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30 분 동안은 침묵 중에 걸어갈 것이고, 항상 많은 말을 피하며, 더더욱 하느님을 향하여 불타오를 수 있는, 경건하고 유익한 일에 대하여 주로 대화할 것이다. 머무를 지역에 도착하여, 기회가 주어지면, 성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성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흡충한 뒤에, 할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후, 만일 시간이 충분하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크리스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활동을 해야지, 불필

요한 방문이나, 혹은 세속일, 그리고 특히 여자와 어울리는 일로 스스로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찾아갈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당한 장상을 방문할 것이지만, 그동안이라도 다른 사람의 선에 유익해야 한다. 또한 세속의 다른 풍습들을 서슴없이 포기하고, 오히려 병원에 있는 불쌍한 환자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해야 한다. 그들 모두를 구원적인 권고로써 도와주고, 위로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신비를 기억하도록 환기시켜야 한다. 기회 있는 대로 하느님의 집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당에서 부당한 것이 발견되면, 재빨리 또 지혜롭게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필요 없으면 친척 집에 가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망자집을 찾으면서, 오로지 하느님으로만 살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은인들이라면, 우리 형제의 친척이어야 하고, 분별없이 또 차별없이 우리를 대접해 주어야 하며,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사랑의 직무에 쓸모가 있어야 하고, 타인의 집에 머무는 만큼 겸손하고 경건하게 처신할 것이다. 무슨 이유로든지 어느 누구도 유언서, 계약, 결혼 그리고 다른 세속일에 관여해서는 않된다. 자기 영혼을 들어올리거나 혹은 무엇을 보다 쉽게 기억해두기 위하여 수도원을 둘러보려 가는 것은, 장상의 허가를 얻어서 누구에게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평소보다 더 멀리

가지 않게 하고, 침묵을 해제시키므로써 서로간에 자유롭게, 또 외부인과 대화하는 등의 일은 하지말게 할 것이다.

제 34 장

한적한 수도원이 있는 인근 지역이나 도시에서 영신수련하는 방법

한적한 수도원에, 이웃의 구원을 돌보기 위하여 순회설교를 하거나 혹은 다른 경건한 일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형제들이 증가할 때에는, 장상이 사제들이나 성직자들 중에서 선발하여 금요일에 인근 지역에 보낼 수 있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크리스챤 신앙 교리와 다른 신심적인 의무를 가르치며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열렬한 기억을 그들 사이에 함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형제는 부과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날 저녁 무렵에 수도원으로 돌아오게 하므로써, 형제들이 선택한 수도자적인 고독의 여러 가지 이익이, 회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수도회의 관례적인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 인근 지역 신자들에게 고백 성사를 준다는 명백한 목적이 없으면, 축일에는 이 임무를 수행하지 말 것이다. 그대신, 언제든지 우리 성당에 와서 죄를 고백케 하고, 이 책임을 맡은 합당한 사제들이 사랑으로 성사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한적한 수도원이나 수련소

에서는, 가능하면, 여자의 고백을 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
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교구 사제에게 고유한 의무를 직무
로 맡을 수 없다. 만일 중대한 이유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일을 법대로, 지혜롭게 처리할 것이다.

제 35 장

수도회에서 해야 할 참회와 공로

회헌에 규정된 단식 이외에도, 매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다른 통상적인 기도와 함께 시편 50편과 129편을 통회하고 겸손한 음성으로 바치면서, 자발적인 편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님의 성탄일부터 공현 팔부까지 그리고 부활 팔부와 그리스도의 성체 축일에는 이를 행하지 않는다. 대림절 첫날부터 성탄까지, 그리고 사순절의 모든 날에는 매주일의 월요일에도 또한 자발적인 편태가 있어야 한다. 만일 축일이 그날과 겹치면, 변경할 것이다. 또한 교회와 수도회 그리고 백성들의 곤란한 시기에 같은 고행을 형제들에게 명하는 일은 같은 장상의 재량에 맡긴다. 또한 그들의 이웃에게 어떤 악을 피하게 한다든지, 하느님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성대한 어떤 구일기도가 진행 중일 때에는, 신심을 얻기 위하여, 참가해야 한다. 덕행으로 진보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를 되풀이 하려는 형제들은 장상이나 영적 지도자의 허락을 얻어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없이, 그들이 특별하게 매여있는 순명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는 결코 행하지 말 것이다. 또한 건강을 잃는다든가 규율에 유익하지 않거나 수도가족에

게 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 금요일에는 누구든지 육신의 자발적인 고행을 열심히 행하거나, 혹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특히 식당에서 먹는 것에서 덕행과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제 36 장

회칙과 회헌 위반 시에 부과해야 할 벌과 고행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회의 회칙과 회헌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벌은 장상의 재량과 지혜에 맡겨야 한다. 장상은 과오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 무겁고 중요한 일이면, 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고위 장상의 의견에 따라 유익하고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크리스챤 사랑이 요구되고, 그 자리에서 빛나야 한다.

앓는 형제들에 대한 배려

건강한 사람들은 앓는 이들을 특별히 돌보아야 한다. 꼼꼼하게 또 크리스챤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육신의 약과 영신의 약을 소홀히 하지 않으므로써, 필요에 따라 환자를 돋고 잘 해주어야 한다. 한편, 환자들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겸손하고도 기쁘게 받아야 한다. 의사와 병실 책임자의 명을 유쾌한 마음으로 실행하고, 온순하고 순종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간호받는 방은 깨끗하고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비록 가난하더라도, 가구도 적절하고 상스럽지 않으며 잘 정돈되어야 한다. 수도원의 장상은 자주 그들을 방문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애정깊은 염려와 관심을 갖고 처신하므로써,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약이나 위로를 받게 해야 한다. 환자들의 침대는 짚으로 꾸미고, 텔이 불과 텔베개로 편리하게 해주되, 일반 모직천으로 덮개를 써우고 깨끗해야 한다. 만일 의사나 병실 책임자들이,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수도복을 벗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아마도 훗 이불과 적삼을 더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망할 때에는 수도복을 입혀야 한다. 중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않된다. 특히 밤중에는 더욱 그러해

야 한다. 그들을 돌보도록 지명된 사람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기력이 극히 떨어져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특별한 배려로 지켜보아야 한다. 누가 생명과 투쟁하기 시작하면, 모든 형제들이 병자의 방에 모이게 하고, 일치된 기도로써 열심히 하느님께 간구하여 그가 경건하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해야 한다.

형제들이 죽을 때 해야 할 일 그리고
죽은 형제들과 은인들을 위하여
수도회에서 바쳐야 할 미사와 기도

수도회의 어느 사제, 성직지망자 혹은 평수사가 생을 마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 수도원의 장상은 관구 내의 각 장상들에게 알리고, 합당한 미사와 기도로써 그의 영혼을 도우게 한다. 이 소식을 받는 즉시 각 수도원의 형제들이 가대에 모여 망자를 위한 모든 의무 기도를 바치고, 거룩한 제사를 봉헌할 것이다. 이외에도 관구의 각 사제들은 미사 3대를 봉헌하여야 한다. 또한 성직지망자들과 평수사들은 성체조배를 5번 하고, 로사리오 기도 전부를 바친다. 그리고 모든 수도자들은 그 영혼을 위한 속죄 행위로서 한번씩 편태하여 자신들을 괴롭혀야 한다. 또한 망자들을 위하여 바치는 신심행위와 가톨릭 교회의 관습에 따라 대사를 얻어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여야 하며, 살아 있는 우리들이 형제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느님의 허락으로 다른 이들로부터 얻어야 할 것임을 확신하도록 수도회의 모든 형제들에게 권고할 것이다. 시신은 땅에 둔 널판지 위에 모시고, 머리에 채를 뿌리며, 손은 십

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가슴 앞에 모아야 하며, 그리고 만일 망자가 사제였으면, 영대를 목에 걸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자모이신 성교회의 예식에 따라 정한 곳에 매장해야 한다. 산자와 죽은 우리 형제들과 은인들을 위하여 우리 수도회에서 늘 하고 있는 기도와 다른 신심행사 외에도, 한달에 한번씩 망자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죽은 은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한다. 우리 수도회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이와같이 한다.

전술한 회칙과 회헌은 수도서원과 직접 관련되는 점을 위반하지 않는한, 비록 완전하게 실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형제들이 대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도회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해서는 않된다. 올바르게 충실하게 또 완전무결하게 실행하도록 연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한 이 생활 신분에서 크리스챤 완덕을 추구하는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가장 알맞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은 성실하고 단순한 눈으로 읽고, 동시에 겸손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실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의문을 품지 말것이며, 임의대로 설명하지도 말 것이다. 이러한 권한은 수도회 전체의 총회에 유보되어 있으며, 이런 시기 외에는, 총장과 그의 참사위 원들에게 유보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도회는 사랑하는 자녀들인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각자가 회헌을 열심히 공

부하고 실행하도록 맡기고, 어머니처럼 권하는 바이다—아들아, 내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만일 수도자적인 배려와 충실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실행한다면, 이를 통하여 오로지 영광 받으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현세의 평온한 삶과 이와같은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이에게 명하실 것이다. —아멘— 회칙과 함께 권고를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의 말씀으로 마감하는 바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며 간청하노니, 이렇게 행하고, 지극히 사랑하올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무시오, 그리고 수도회가 여러분을 지키듯이 항상 수도회를 수호하도록 애쓰십시오— 이렇게 되어지이다. 아멘.